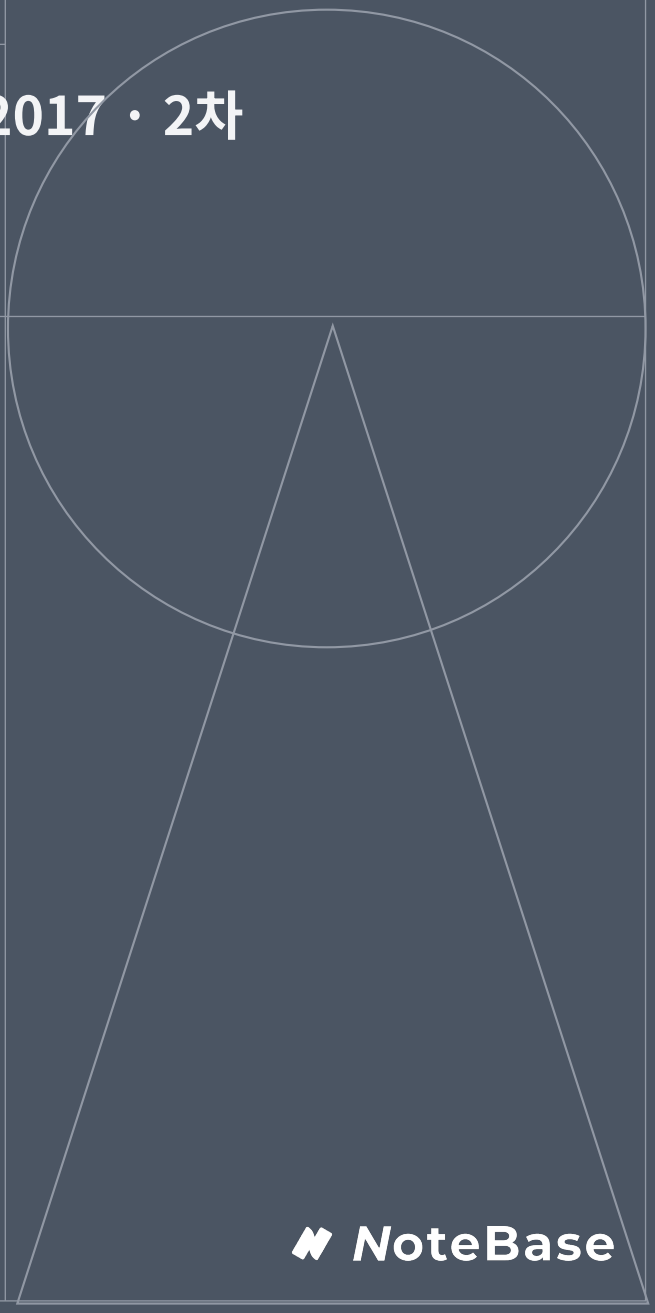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국어 · 2017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국어 · 2017 · 2차

공무원/해경/순경 · 국어 · 2017 · 2차

문 1. 다음 중 발음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솥에 팥을[파틀] 넣고 삶으면 팥이[파치] 익는다.

② 고기가 질겨서[질겨서] 가위로 싹둑[싹둑] 잘랐다.

③ 갑자기[갑짜기] 통역을[통여글] 맡아 당황스러웠다.

④ 자리에 앉아서[안자서] 그것의 효과[효⊠과]를 생각해 보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받침 뒤에 모음이나 자음이 올 때 나타나는 연음, 구개음화, 된소리되기와 겹받침의 발음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연음은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받침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현상이다. 다만 받침 'ㄷ, ㅌ' 뒤에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각각 [ㅈ,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또한 받침 [ㄱ, ㄷ, ㅂ] 뒤의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팥을'은 받침 '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을'로 이어져 [파틀]로 발음한다. '팥이'는 'ㅌ' 뒤에 'ㅣ'로 시작하는 조사 '이'가 결합하므로 구개음화되어 [파치]로 발음한다.

② X — '질겨서'는 '질기어서'가 줄어든 말로 [질겨서]가 맞다. 그러나 '싹둑'은 받침 [ㄱ] 뒤의 'ㄷ'이 된소리로 바뀌므로 [싹뚝]으로 발음한다. 틀린 표현은 '싹둑[싹둑]'이며, 올바르게는 '싹둑[싹뚝]'이다.

③ O — '갑자기'는 받침 [ㅂ] 뒤의 'ㅈ'이 된소리가 되어 [갑짜기]로 발음한다. '통역을'은 받침 'ㄱ'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을'로 이어져 [통여글]로 발음한다.

④ O — '앉아서'는 겹받침 'ㄵ'에서 'ㄴ'은 앞 음절의 받침으로 남고 'ㅈ'은 뒤 음절로 이어져 [안자서]로 발음한다. '효과'의 [효⊠과]는 표준 발음이다.

오답 포인트

'싹둑'은 표기를 보고 [싹둑]으로 읽기 쉽지만, 받침 [ㄱ] 뒤의 'ㄷ'에는 된소리되기가 적용된다. 표기는 '싹둑'으로 유지하고 발음만 [싹뚝]으로 바뀐다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받침 뒤의 소리를 확인한다. 뒤가 모음이면 연음이나 구개음화를, 뒤가 'ㄱ, ㄷ, ㅂ, ㅅ, ㅈ'이면 앞 받침이 [ㄱ, ㄷ, ㅂ]으로 발음되는지를 살펴 된소리되기 여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팥이'는 구개음화로 [파치], '싹둑'은 된소리되기로 [싹뚝]이다.

NoteBase

문 2. 다음 단어에서 의미 변화 양상이 다른 것은?

① 지갑
② 황제
③ 약주
④ 얼굴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단어의 옛 의미와 오늘날의 의미를 비교하여 의미 확대와 의미 축소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미 확대는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이나 사용 범위가 전보다 넓어지는 현상이다. 의미 축소는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이나 사용 범위가 전보다 좁아지는 현상이다. 지갑·황제·약주는 의미 확대의 예이고, 얼굴은 의미 축소의 예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지갑'은 본래 종이로 만든 갑을 가리켰으나 오늘날에는 가죽이나 헝겊 등 여러 재료로 만든 물건까지 가리킨다. 의미 축소가 아니라 의미 확대의 예이다.
② X — '황제'는 본래 제국의 군주를 가리켰으나 오늘날에는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지위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가리키기도 한다. 의미 축소가 아니라 의미 확대의 예이다.
③ X — '약주'는 본래 약으로 쓰는 술을 가리켰으나 오늘날에는 술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의미 축소가 아니라 의미 확대의 예이다.
④ O — '얼굴'은 본래 몸 전체의 형체를 가리켰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머리 앞면의 눈·코·입이 있는 부분을 가리킨다. 가리키는 범위가 좁아진 의미 축소의 예이므로 나머지 세 단어와 의미 변화 양상이 다르다.

오답 포인트

현대어의 뜻만 떠올리면 네 단어의 변화 방향을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얼굴'의 옛 의미가 몸 전체의 형체였다는 점을 놓치면, 나머지 단어와 마찬가지로 의미가 넓어진 것으로 잘못 판단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옛 의미가 가리킨 대상의 범위와 현대 의미가 가리키는 범위를 비교한다. 현대의 적용 대상이 늘었으면 의미 확대, 일부로 한정되었으면 의미 축소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지갑·황제·약주는 확대, 얼굴은 몸 전체의 형체에서 안면으로 좁아진 축소이다.

NoteBase

문 3. 다음 중 맞춤법이나 표기법에 맞지 않는 것은?

① 광희문(Gwanghuimun), 호법(Hobeop), 종로(Jongno), 독도(Dokdo)로 표기한다.

② 표준 발음에서 인정하는 것은 밟다[밥☒따], 밟고[밥☒꼬], 넓다[널따], 값을[갑쓸]이다.

③ 외래어 표기법에서 cake을 케이크, juice를 주스, alchol을 알코올, boat는 보트로 표기한다.

④ ㄱ[기역], ㄷ[디귿], ㅅ[시옷], ㅌ[티읃]으로 발음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로마자 표기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한글 자모 이름을 구별하여 규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로마자 표기와 외래어 표기는 정해진 표기 원칙에 따르고, 표준 발음은 받침과 겹받침의 실제 발음 규정에 따른다. 한글 자모의 이름도 규범으로 정해져 있으며, ㄱ은 기역, ㄷ은 디귿, ㅅ은 시옷, ㅌ은 티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광희문은 Gwanghuimun, 호법은 Hobeop, 종로는 Jongno, 독도는 Dokdo로 적으므로 로마자 표기가 모두 맞다.
② O — 겹받침의 표준 발음에 따라 밟다는 [밥☒따], 밟고는 [밥☒꼬], 넓다는 [널따]로 발음하고, 값을은 연음되어 [갑쓸]로 발음한다.
③ O —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는 케이크, 주스, 알코올, 보트이므로 제시된 한글 표기가 모두 맞다.
④ X — 틀린 부분은 'ㅌ[티읃]'이다. ㅌ의 이름은 '티읕'이므로 'ㄱ[기역], ㄷ[디귿], ㅅ[시옷], ㅌ[티읕]'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티읃'은 ㄷ의 이름인 '디귿'과 형태가 비슷하여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ㅌ의 이름 끝소리는 'ㅡ읕'이다. 또한 ②는 철자대로 소리 내지 않고 겹받침의 표준 발음을 적용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로 다른 어문 규범이 섞여 나오면 각 선지를 로마자 표기, 표준 발음, 외래어 표기, 자모 이름으로 먼저 나눈 뒤 해당 규정과 하나씩 대조한다. 자모 이름에서는 모양이 비슷한 '디귿'과 '티읕'의 끝부분을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ㄷ은 디귿, ㅌ은 티읕이다.

NoteBase

문 4. 다음 보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중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여 잘못 표기된 지명 이름을 수정하였을 때, 가장 바르게 수정된 것은?

<보기>
-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단,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지명 이름: 압구정, 수정 전: Abggujjeong, 수정 후: Apgujeong

② 지명 이름: 설악산, 수정 전: seolaksan, 수정 후: seoraksan

③ 지명 이름: 낙동강, 수정 전: Nagddonggang, 수정 후: Nakddonggang

④ 지명 이름: 울릉, 수정 전: Ulreung, 수정 후: Uleung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국어의 로마자 표기에서 된소리되기의 반영 여부, 자음의 환경별 표기, 고유 명사의 대문자 표기를 함께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에 따르되,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 k, t, p로 적는다. 'ㄹ'은 모음 앞에서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 l로 적으며, 'ㄹㄹ'은 ll로 적는다. 지명과 같은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압구정'은 Apgujeong으로 적는다. '압'의 받침 ㅂ은 뒤의 자음 ㄱ 앞에서 p로 적고, 발음상 나타나는 된소리 [ㄲ]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gg가 아니라 g로 적는다.
② X — 틀린 표현은 첫 글자를 소문자로 쓴 'seoraksan'이다. 지명은 고유 명사이므로 올바른 표기는 'Seoraksan'이다. 또한 '설'의 ㄹ은 뒤 자음 ㅇ 앞에서 l로, '악'의 받침 ㄱ은 뒤 자음 ㅅ 앞에서 k로 적는다.
③ X — 틀린 표현은 'Nakddonggang'의 'dd'이다. '낙동강'의 된소리 발음 [ㄸ]은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올바른 표기는 'Nakdonggang'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Uleung'처럼 ㄹ 하나를 빠뜨린 부분이다. '울릉'에는 'ㄹㄹ'이 이어지므로 ll로 적어야 하며, 올바른 표기는 'Ulleung'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표준 발음을 따른다는 원칙만 보고 된소리 발음까지 gg나 dd로 옮기기 쉽다. 그러나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며, ②는 자음 표기는 고쳤더라도 고유 명사의 첫 글자를 소문자로 둔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된소리되기를 표기에서 제외한 뒤, 각 자음이 모음 앞인지 자음 앞·어말인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ㄹㄹ의 ll 표기와 고유 명사의 첫 글자 대문자 여부를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된소리되기는 쓰지 않고, ㄹㄹ은 ll로 쓰며, 지명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NoteBase

문 5. 다음 중 한자 성어가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는 이번에 오래 사귄 친구를 잃는 伯牙絶絃의 슬픔을 겪었다.

②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현재의 隔靴搔癢식의 대처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③ 이번에 아드님을 얻은 弄瓦之慶을 축하드립니다.

④ 掩耳盜鈴식의 얕은꾀를 부려 봐야 머지않아 본색이 드러나고야 말 것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한자 성어의 정확한 뜻과 문장의 상황이 서로 맞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伯牙絶絃(백아절현): 절친한 벗의 죽음을 슬퍼하는 일을 뜻한다.
隔靴搔癢(격화소양): 신을 신은 채 가려운 곳을 긁는다는 말로, 문제의 핵심에 닿지 못해 성과가 없음을 뜻한다.
弄瓦之慶(농와지경): 딸을 낳은 경사를 뜻한다. 아들을 낳은 경사는 弄璋之慶(농장지경)이다.
掩耳盜鈴(엄이도령): 제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친다는 말로, 뻔히 드러날 일을 얕은꾀로 속이려는 어리석음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伯牙絶絃은 백아가 친구 종자기의 죽음 뒤 거문고 줄을 끊었다는 데서 유래하여, 가까운 벗을 잃은 슬픔이라는 문맥에 알맞다.
② O — 隔靴搔癢은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는 피상적인 대응을 뜻하므로,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문맥에 알맞다.
③ X — 틀린 표현은 아들을 얻은 경사를 弄瓦之慶이라고 한 부분이다. 弄瓦之慶은 딸을 얻은 경사이며, 아들을 얻은 경사는 弄璋之慶이라고 한다.
④ O — 掩耳盜鈴은 자신만 모른 체하며 남을 속이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뜻하므로, 얕은꾀를 부려도 본색이 드러난다는 문맥에 알맞다.

오답 포인트

③의 弄瓦之慶과 弄璋之慶은 글자와 음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瓦는 여자아이의 장난감인 실패를 가리켜 딸의 탄생과 연결되고, 璋은 남자아이에게 주던 옥홀을 가리켜 아들의 탄생과 연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 성어를 대략적인 긍정·부정 의미로만 판단하지 않고, 대상과 상황까지 정확히 대응시킨다. 출산 관련 성어는 瓦가 딸, 璋이 아들이라는 구별을 적용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弄瓦之慶은 딸, 弄璋之慶은 아들이다.

NoteBase

문 6.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문장은?(∨는 띄어쓰기 부호)

① 합격했다는∨말에∨뛸듯이∨기뻐하였다.

② 그∨녀석∨고마워하기는∨커녕∨알은체도∨않더라.

③ 나는∨오늘∨저녁에∨엄마를∨도와∨요리를∨할거야.

④ 보잘것없는∨수입이지만∨저는∨이∨일이∨좋습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의존 명사와 조사, 한 단어로 굳어진 합성어를 구별하여 띄어 쓰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고,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듯'과 '거(것)'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며, '는커녕'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보잘것없다'와 '알은체하다'는 각각 한 단어로 굳어진 말이므로 붙여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뛸듯이'의 '듯'은 앞말의 내용을 짐작하거나 비유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합격했다는 말에 뛸 듯이 기뻐하였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 '고마워하기는 커녕'에서 '는커녕'은 앞말에 붙는 조사이므로 띄어 쓸 수 없다. '그 녀석 고마워하기는커녕 알은체도 않더라.'로 고쳐야 한다. '알은체하다'는 한 단어이므로 '알은체도'는 붙여 쓴다.
③ X — '할거야'의 '거'는 의존 명사 '것'의 구어적 표현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나는 오늘 저녁에 엄마를 도와 요리를 할 거야.'로 고쳐야 한다.
④ O — '보잘것없다'는 '볼 만한 가치가 없거나 하찮다'라는 뜻의 한 단어이므로 '보잘것없는'처럼 붙여 쓴다. 나머지 '수입이지만',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의 띄어쓰기도 모두 옳다.

오답 포인트

①의 '듯'과 ③의 '거'는 의존 명사인데 붙여 쓴 것이 함정이고, ②의 '는커녕'은 조사인데 띄어 쓴 것이 함정이다. 반대로 ④의 '보잘것없다'는 여러 구성 요소가 보여도 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 있는 합성어이므로 붙여 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앞말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 '듯·것(거)'은 띄어 쓰고, 조사 '는커녕'은 붙여 쓴다. 여러 말이 결합한 표현은 한 단어로 굳어진 합성어인지도 함께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뛸 듯이·할 거야는 띄고, 고마워하기는커녕·보잘것없다는 붙인다.

NoteBase

문 7.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을 잘못 고친 것은?

①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바랍니다.

② 그 일은 학생으로써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 학생으로서

③ 기상청에서는 곧 장마가 끝날 것으로 미리 예상했다. → 앞서 예상했다.

④ 문제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낯선 장소로 이동되었다. → 이동되었다는 점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장 성분의 호응, 조사 '-로서/-로써'의 구별, 의미가 겹치는 표현의 올바른 다듬기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로서'는 지위·신분·자격을, '-로써'는 수단·도구·재료를 나타낸다. 또한 '예상하다'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헤아린다는 뜻이 들어 있으므로, 같은 의미의 말을 덧붙이지 않고 간결하게 다듬는다. '문제는'처럼 판단의 대상을 제시한 문장은 뒤에서 '~라는 것이다'나 '~라는 점이다'로 호응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선지별 해설

① O — '바라다'에 앞으로의 뜻이 들어 있는데 '-겠-'까지 쓰면 의미가 겹쳐 장황해질 수 있으므로 '바라겠습니다'를 '바랍니다'로 다듬은 것은 적절하다.
② O — '학생'은 수단이 아니라 신분·자격이므로 '학생으로써'를 '학생으로서'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③ X — '예상하다' 자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헤아린다는 뜻이므로 '미리'를 '앞서'로 바꾸기만 해서는 의미 중복을 제대로 없애지 못한다. 틀린 교정은 '앞서 예상했다'이며, 올바르게는 '기상청에서는 곧 장마가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이다.
④ O — '문제는'과 서술어 '이동되었다'가 바로 호응하지 않으므로, 판단 내용을 명사절로 만든 '이동되었다는 점이다'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은 '미리'를 유의어인 '앞서'로 바꾸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다듬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핵심은 낱말 교체가 아니라 '예상하다'와 겹치는 시간 의미를 덜어 내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친 표현이 제시되면 맞춤법만 보지 않고, 원문의 문제가 실제로 사라졌는지를 확인한다. 자격에는 '-로서', 수단에는 '-로써'를 쓰며, '문제는' 뒤에는 '~라는 것이다'나 '~라는 점이다'가 호응하는지 살핀다. 의미 중복은 비슷한 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겹치는 성분을 덜어 내야 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자격은 '-로서', 수단은 '-로써', '예상' 앞의 '미리·앞서'는 덜어 내고, '문제는' 뒤에는 '~라는 점이다'가 호응한다.

NoteBase

문 8. 다음은 국어사전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새01[새□]
1. ㉠ 한곳에서 다른 곳까지, 또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까지의 거리나 공간.
2. ㉡ 한때로부터 다른 때까지의 동안.
3. ㉢ 어떤 일에 들이는 시간적인 여유나 겨를.
□
새06
1. ㉣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
2. ㉤ 사용하거나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① '너무 바빠서 쉴 새도 없다.'에서 '새'는 ㉠의 의미이다.

② '사람들 새로 친구의 모습이 언뜻 보였다.'에서 '새'는 ㉣의 의미이다.

③ '잠깐 한눈을 판 새에 친구가 사라져 버렸다.'에서 '새'의 품사는 대명사이다.

④ '새 기분으로 일을 시작하다.'에서 '새'는 다른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따라 동음이의어 '새'의 뜻과 품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새01'은 거리·공간, 동안, 겨를을 뜻하는 명사이다. 반면 '새06'은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 또는 '사용하거나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의 뜻으로 뒤의 체언을 꾸미는 관형사이다.
문맥에서 '사이'로 바꾸어 자연스러우면 명사 '새01'인지 살피고, 뒤 체언에 '새로운'의 뜻을 더하면 관형사 '새06'인지 살핀다.

선지별 해설

① X — '쉴 새도 없다'의 '새'는 '쉴 시간적 여유나 겨를도 없다'는 뜻이므로 ㉢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의 의미'이며, 올바르게는 '㉢의 의미'이다.
② X — '사람들 새로 친구의 모습이 보였다'의 '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을 뜻하므로 ㉠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의 의미'이며, 올바르게는 '㉠의 의미'이다.
③ X — '한눈을 판 새에'의 '새'는 한눈을 판 때부터 친구가 사라진 때까지의 동안을 뜻하는 명사로, ㉡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품사는 대명사'이며, 올바르게는 '품사는 명사'이다.
④ O — '새 기분'의 '새'는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생겨난'이라는 ㉣의 뜻을 나타내며, 체언인 '기분'을 꾸미는 관형사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새’를 모두 같은 단어로 보거나, ‘쉴 새’와 ‘한눈을 판 새’의 뜻을 혼동하기 쉽다. ‘쉴 새’는 시간적 여유인 ㉢이고, ‘한눈을 판 새’는 일정한 동안인 ㉡이다. 또한 ②의 ‘새’는 ‘새로운’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공간을 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새’ 뒤에 조사가 붙고 거리·동안·겨를을 나타내면 명사로 판단한다. ‘새’가 바로 뒤의 체언을 꾸미면서 ‘새로운’으로 바꾸어도 뜻이 통하면 관형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이·동안·겨를의 ‘새’는 명사, ‘새로운’의 ‘새’는 관형사이다.

NoteBase

문 9.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수필이란 일정한 형식 없이 인생에 대한 관조나 체험을 작가의 개성에 따라 쓴 산문의 한 종류로, 제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① 型式 - 觀照 - 體險 - 製材
② 形式 - 觀照 - 體驗 - 題材
③ 形式 - 觀造 - 體險 - 題材
④ 型式 - 觀造 - 體驗 - 製材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한자어의 정확한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형식은 形式, 관조는 觀照, 체험은 體驗, 제재는 題材로 쓴다. 글의 소재를 뜻하는 제재(題材)는 나무를 가공한다는 뜻의 제재(製材)와 음은 같지만 뜻과 한자가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관조(觀照)만 바르다. '型式'은 일정한 짜임을 뜻하는 '形式'으로, '體險'은 몸소 겪음을 뜻하는 '體驗'으로, '製材'은 글의 소재를 뜻하는 '題材'로 고쳐야 한다.
② O — 형식(形式), 관조(觀照), 체험(體驗), 제재(題材)가 모두 문맥과 표기에 맞다.
③ X — 형식(形式)과 제재(題材)만 바르다. '觀造'는 대상을 고요히 바라본다는 뜻의 '觀照'로, '體險'은 몸소 겪는다는 뜻의 '體驗'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체험(體驗)만 바르다. '型式'은 '形式'으로, '觀造'는 '觀照'로, '製材'은 글의 소재를 뜻하는 '題材'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같은 음을 가진 한자인 式·型, 照·造, 驗·險, 題·製를 바꾸어 놓은 것이 함정이다. 특히 제재는 문학 작품의 소재라는 문맥이므로 '題材'이며, 목재를 만든다는 뜻의 '製材'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단어의 음만 보지 않고 문맥 속 뜻을 먼저 확정한 뒤 한자의 뜻을 대응한다. 형식은 모양 형(形)·법 식(式), 관조는 볼 관(觀)·비칠 조(照), 체험은 몸 체(體)·시험할 험(驗), 제재는 제목 제(題)·재목 재(材)의 결합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수필의 네 표기는 '形式-觀照-體驗-題材'이다.

NoteBase

문 10. 다음은 맞춤법에 관한 과제를 수행한 것이다. 옳은 것은?

※ 밑줄 친 어휘가 맞춤법에 맞으면 ○, 틀리면 × 하시오.
㉠ 약을 정성껏 달여라. ( )
㉡ 왠지 오늘은 기분이 좋다. ( )
㉢ 물감을 듬뿍 무쳐서 색칠을 해라. ( )
㉣ 어른이 되서 원하는 것을 해야지. ( )
㉤ 내노라하는 재계의 인사들이 한곳에 모였다. (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음이나 익숙한 표기에 끌리지 않고 각 어휘의 기본형과 준말을 기준으로 맞춤법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 '달여라'는 '약재 따위에 물을 부어 우러나도록 끓이다'라는 뜻의 '달이다'가 활용한 말이므로 맞다(O).
㉡ '왠지'는 '왜인지'가 줄어든 말이므로 맞다(O).
㉢ 물감이 물체에 붙게 한다는 뜻에는 '묻히다'를 써야 하므로 '무쳐서'는 '묻혀서'로 고쳐야 한다(X).
㉣ '되어서'의 준말은 '돼서'이므로 '되서'는 '돼서'로 고쳐야 한다(X).
㉤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는 뜻의 기본형은 '내로라하다'이므로 '내노라하는'은 '내로라하는'으로 고쳐야 한다(X).
따라서 올바른 판정은 ㉠ O, ㉡ O, ㉢ X, ㉣ X, ㉤ X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 O, ㉡ O, ㉢ X, ㉣ X, ㉤ X로 판정하여 실제 맞춤법 판정과 모두 일치한다.
② X — ㉡을 X, ㉣을 O로 표시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왠지'가 맞으므로 ㉡은 O이고, '되서'는 '돼서'로 고쳐야 하므로 ㉣은 X이다.
③ X — ㉠~㉤의 판정이 모두 실제와 반대이다. 올바른 배열은 ㉠ O, ㉡ O, ㉢ X, ㉣ X, ㉤ X이다.
④ X — ㉡을 X로 표시한 부분이 틀렸다. '왠지'는 '왜인지'의 준말이므로 ㉡은 O이며, 나머지 ㉠ O, ㉢ X, ㉣ X, ㉤ X 판정은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의 ‘왠지’를 잘못된 표기로 착각하면 ④를 고르기 쉽다. ‘왠지’는 ‘왜인지’의 준말이고, 관형사 ‘웬’이 쓰이는 ‘웬일’, ‘웬 사람’과 구별된다. 또한 ㉢은 음식을 양념과 섞는 ‘무치다’가 아니라 물감을 표면에 붙게 하는 ‘묻히다’의 의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준말은 원말로 되돌려 판별한다. ‘왠지→왜인지’, ‘돼서→되어서’처럼 원말이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동음·유사어는 문맥의 뜻에 맞는 기본형이 ‘무치다’인지 ‘묻히다’인지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약은 달이고, 이유 없이 느껴지면 왠지이며, 물감은 묻히고, 되어서는 돼서이며, 대표자는 내로라한다.

NoteBase

문 11. 다음 글을 읽고 독서의 목적을 차례대로 바르게 추리한 것은?

옛말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아니하면 입 속에 가시가 돋친다[一日不讀書 口中生荊棘(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라는 말이 있지만, 오늘날은 하루 책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치는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생존 경쟁이 격심한 마당에 있어서 하루만큼 낙오가 되어, 열패자의 고배와 비운을 맛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① 현실성과 추상성
② 윤리성과 실용성
③ 실용성과 기호성
④ 목적성과 개념성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글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타난 독서의 목적을 각각 추리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윤리성은 독서를 통해 말과 인격을 닦는 정신적·도덕적 목적이다. 실용성은 독서를 현실의 경쟁과 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을 얻는 수단으로 보는 목적이다. 기호성은 즐거움이나 취향을 위한 독서이고, 추상성은 구체적인 현실 효용에서 벗어난 관념적 성격을 가리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입 속에 가시가 돋친다'는 말은 독서하지 않으면 말과 인격이 거칠어진다는 뜻이므로 앞부분은 현실성이 아니라 윤리성이다. 또한 생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한 독서는 추상성이 아니라 실용성이다. 올바른 짝은 '윤리성과 실용성'이다.

② O
앞부분은 독서로 말과 인격을 닦는 윤리적 목적을, 뒷부분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실용적 목적을 나타낸다.

③ X
앞부분의 목적을 '실용성'으로 본 것과 뒷부분의 목적을 '기호성'으로 본 것이 모두 잘못이다. 즐거움이나 취향을 위한 독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올바르게는 앞부분이 윤리성, 뒷부분이 실용성이다.

④ X
'목적성'과 '개념성'은 이 글에서 대비되는 독서 목적의 내용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말과 인격의 수양을 뜻하는 윤리성과 현실의 생존 경쟁에 대응하려는 실용성이다.

오답 포인트

뒷부분의 '오늘날', '생존 경쟁', '낙오' 같은 현실적 표현만 보고 ①의 '현실성'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문제는 글 전체의 성격이 아니라 앞부분과 뒷부분의 목적을 차례로 묻는다. 특히 '입 속에 가시가 돋친다'는 비유는 말과 인격의 수양이라는 윤리성을 나타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단을 의미 단위로 나누고 각 부분에서 독서로 얻으려는 결과를 찾는다. 인격·품행·말의 수양이면 윤리성, 생활에 필요한 능력이나 경쟁에서의 생존이면 실용성, 즐거움과 취향이면 기호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말과 인격을 닦는 독서는 윤리성, 현실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독서는 실용성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보기의 ㉠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주어가 제 힘으로 행동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고,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행동을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그런데 능동문 중에는 ㉠대응하는 피동문을 만들기 어려운 능동문이 있다.

① 누군가가 현관문을 뜯었다.
② 고모가 귀여운 동생을 업었다.
③ 나는 어려운 바둑을 배웠다.
④ 호랑이가 작은 사슴을 잡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능동문의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고 능동사에 대응하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피동문을 만들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능동문은 주어가 제 힘으로 동작을 하는 문장이고, 피동문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을 당하는 문장이다.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에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되고, 서술어는 '뜯기다·업히다·잡히다'처럼 대응하는 피동 표현으로 바뀐다. 그러나 모든 타동사가 자연스러운 피동문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누군가가 현관문을 뜯었다.'는 '현관문이 누군가에게 뜯겼다.'라는 자연스러운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대응하는 피동문을 만들 수 있는 능동문이다.

② X
'고모가 귀여운 동생을 업었다.'는 '귀여운 동생이 고모에게 업혔다.'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업다'에 대응하는 피동사 '업히다'를 사용해 피동문을 만들 수 있는 능동문이다.

③ O
'나는 어려운 바둑을 배웠다.'에서 목적어 '어려운 바둑'을 주어로 삼아 '어려운 바둑이 나에게 배워졌다.'라고 하면 자연스럽지 않다. '배우다'는 이 문맥에서 행위자와 대상을 그대로 대응시킨 자연스러운 피동문을 만들기 어려우므로 ㉠에 해당한다.

④ X
'호랑이가 작은 사슴을 잡았다.'는 '작은 사슴이 호랑이에게 잡혔다.'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잡다'에 대응하는 피동사 '잡히다'를 사용해 피동문을 만들 수 있는 능동문이다.

오답 포인트

목적어가 있는 모든 능동문을 기계적으로 '-어지다' 형태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③의 '배워졌다'는 형태 자체보다 '바둑이 나에게 배워졌다'라는 문장 전체가 자연스러운 대응 피동문인지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능동문의 목적어를 피동문의 주어로 옮긴 뒤 서술어를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본다. 바꾼 문장이 원래의 행위자와 대상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러우면 대응 피동문이 있고, 부자연스러우면 대응 피동문을 만들기 어려운 능동문이다.

암기 포인트

뜯다→뜯기다, 업다→업히다, 잡다→잡히다는 자연스럽지만, 이 문맥의 배우다→배워지다는 자연스러운 대응 피동이 아니다.

NoteBase

문 13. 다음 <안내문>의 밑줄 친 부분에서 한글 맞춤법이 바르게 표기된 것은?

<안내문>
겨울에는 기상이 자주 변하면서 본격적으로 바람이 심해집니다. 부두에 계류하고 있는 어선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어선들은 ①번번히 서로 부딪혀 피해를 입습니다. 작년 겨울에도 선장님들께 선박 안전관리 방법을 사전에 알려드리고 개별적인 조치를 당부 드렸지만 ②안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겨울에도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니 선장님들은 어선이 잘 계류되어 있는지 ③반듯이 확인 바랍니다. 또한 바람이 심하면 부두에 있는 ④휴계 시설은 사용을 통제하니 참고바랍니다.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리가 비슷한 부사 '번번이·반드시'의 표기, 부정 부사 '안'의 띄어쓰기, 명사 '휴게'의 정확한 표기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번번이'는 '매번'이라는 뜻의 부사이고,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의 부사이다. '안'은 용언을 부정하는 부사이므로 뒤의 용언과 띄어 쓰며, '휴게'는 잠시 쉬는 것을 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번번히’가 잘못된 표기이다. ‘매번’이라는 뜻이므로 ‘번번이 서로 부딪혀’로 고쳐야 한다.

② O
‘안’은 ‘이루어지다’를 부정하는 부사이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처럼 띄어 쓴 표기가 바르다.

③ X
‘반듯이’가 문맥에 맞지 않는다. ‘반듯이’는 ‘비뚤어지거나 기울지 않고 바르게’라는 뜻이고, 이 문장처럼 ‘꼭’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에는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휴계’가 잘못된 표기이다. 잠시 쉬는 시설이라는 뜻이므로 ‘휴게 시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번번히’는 ‘빈번히’와 형태가 비슷해 혼동하기 쉽고, ③의 ‘반듯이’는 발음이 비슷한 ‘반드시’와 뜻을 구별해야 한다. ④는 ‘휴게’의 ‘게’를 ‘계’로 잘못 적기 쉬운 표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맥상 뜻을 확인한다. ‘매번’이면 ‘번번이’, ‘꼭’이면 ‘반드시’, ‘바르게’이면 ‘반듯이’를 쓴다. 부정의 뜻을 더하는 ‘안’은 뒤의 용언과 띄어 쓰고, ‘쉬다’의 뜻이면 ‘휴게’로 적는다.

암기 포인트

매번은 ‘번번이’, 꼭은 ‘반드시’, 바르게는 ‘반듯이’, 쉬는 곳은 ‘휴게 시설’이다.

NoteBase

문 14. 다음에 제시된 외래어 중 우리말 표기가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아울렛, 말레이시아, 럭키, 산타클로스, 프로포즈,
스태미나, 쿵푸, 포크레인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제시된 외래어를 규범 표기와 하나씩 대조하여 올바른 표기의 개수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래어는 실제로 널리 쓰이는 표기와 규범 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외래어 표기법과 사전에 따른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올바른 표기: 말레이시아, 산타클로스, 스태미나
잘못된 표기와 바른 표기: 아울렛 → 아웃렛, 럭키 → 러키, 프로포즈 → 프러포즈, 쿵푸 → 쿵후, 포크레인 → 포클레인
따라서 올바른 것은 모두 3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올바른 표기는 말레이시아, 산타클로스, 스태미나의 3개이므로 맞다.
② X — 4개가 아니라 3개이다. 아울렛은 아웃렛, 럭키는 러키로 적어야 하므로 올바른 표기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X — 5개가 아니라 3개이다. 프로포즈는 프러포즈, 쿵푸는 쿵후로 고쳐야 한다.
④ X — 6개가 아니라 3개이다. 포크레인은 포클레인으로 적어야 하며, 잘못 표기된 단어는 모두 5개이다.

오답 포인트

럭키, 프로포즈, 쿵푸, 포크레인은 일상에서 자주 보이지만 규범 표기는 각각 러키, 프러포즈, 쿵후, 포클레인이다. 익숙한 표기를 곧바로 맞는 표기로 판단하면 개수를 잘못 세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단어 옆에 O/X를 표시한 뒤 O만 센다. 이 문항에서는 말레이시아·산타클로스·스태미나만 O이고 나머지 다섯 단어는 규범 표기로 고쳐야 한다.

암기 포인트

아웃렛·러키·프러포즈·쿵후·포클레인, 그리고 말레이시아·산타클로스·스태미나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피동문(被動文)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것을 표현한 문장으로 피동사는 능동사에 피동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여 만들거나 '-어지다', '-게 되다'를 붙여 만든다. 이러한 피동 표현을 겹쳐 사용한 것을 이중피동이라 하는데 이는 어법에 어긋난 표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① 진실이 묻혀지지 않도록 꼭 밝혀내야 한다.
② 손에 들려져 있는 물건이 보이지 않았다.
③ 정원에는 푸른 잔디가 곱게 깔려져 있었다.
④ 버려진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피동 접미사가 붙은 피동사에 다시 '-어지다'를 결합한 이중 피동과, 능동사에 '-어지다'를 한 번만 결합한 피동 표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피동 표현은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이거나 '-어지다'를 결합하여 만든다. 이미 피동 접미사로 만든 말에 '-어지다'를 다시 붙이면 '묻히어지다', '들리어지다', '깔리어지다'와 같은 불필요한 이중 피동이 된다. 반면 '버려지다'는 능동사 '버리다'에 '-어지다'가 한 번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묻혀지지'는 '묻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은 '묻히다'에 다시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이다.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들려져'는 '들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은 '들리다'에 다시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이다. '손에 들려 있는'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깔려져'는 '깔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은 '깔리다'에 다시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이다. '푸른 잔디가 곱게 깔려 있었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 '버려진'은 능동사 '버리다'에 '-어지다'가 결합한 '버려지다'의 활용형이다. 피동 표현이 한 번만 사용되었으므로 이중 피동의 사례가 아니다.

오답 포인트

'-여지다'처럼 보인다는 겉모양만으로 이중 피동을 판단하면 ④를 놓치기 쉽다. '묻히다·들리다·깔리다'는 이미 피동 접미사를 포함하지만, '버리다'의 '리'는 어간의 일부이므로 피동 접미사 '-리-'가 아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을 '피동 접미사로 만든 피동사 + -어지다'로 분석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앞말이 이미 피동사이면 이중 피동이고, 능동사에 '-어지다'만 한 번 붙었다면 일반적인 피동 표현이다.

암기 포인트

묻히어지다·들리어지다·깔리어지다는 이중 피동이고, 버려지다는 '버리다 + -어지다'인 단일 피동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랴

굽어보면 천심녹수(千尋綠水) 돌아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① 화자의 시선 이동이 나타나 있다.
②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대구의 방법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④ 관념적이고 상투적인 한자어의 표현이 두드러진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작품에 나타난 시선 이동, 감정 이입, 대구, 한자어 표현을 실제 시어와 대조하여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감정 이입은 화자의 감정을 자연물이나 사물에 옮겨 그 대상도 같은 감정을 지닌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작품의 자연물은 강호의 풍경과 화자가 처한 공간을 보여 주지만, 화자의 감정을 대신 느끼는 존재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대구는 구조가 비슷한 구절을 나란히 놓아 의미와 정서를 강조하는 방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굽어보면 천심녹수'에서 아래의 물을 보고, 이어 '돌아보니 만첩청산'에서 주변의 산을 바라보므로 화자의 시선 이동이 나타난다.
② X — 틀린 부분은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이다. 녹수, 청산, 달빛 등의 자연물은 강호의 맑고 한적한 풍경을 구성할 뿐, 화자의 감정을 지닌 것처럼 표현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자연 경관을 묘사하여 강호에서 느끼는 한적함과 자연 친화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야 한다.
③ O — '굽어보면 천심녹수'와 '돌아보니 만첩청산'은 비슷한 문장 구조로 짝을 이루는 대구이다. 이를 통해 물과 산으로 둘러싸인 강호의 풍경과 그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④ O — '일엽편주', '만경파', '인세', '천심녹수', '만첩청산', '십장홍진', '장안', '북궐' 등 관념적이고 관습적으로 쓰이는 한자어가 연이어 나타난다. 특히 '홍진'은 번거로운 속세를, '장안'과 '북궐'은 임금과 조정이 있는 공간을 가리키는 상투적 표현이다.

오답 포인트

자연물이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감정 이입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감정 이입이 성립하려면 자연물이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등 화자의 감정을 지닌 존재처럼 표현되어야 하는데, 이 작품에는 그러한 표현이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법 선지는 작품 속 구체적인 시어와 일대일로 대응시킨다. '굽어보면·돌아보니'는 시선 이동, 구조가 대응하는 두 구절은 대구이며, 자연물의 단순한 등장이나 풍경 묘사는 감정 이입과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자연물 등장만으로는 감정 이입이 아니다. 자연물이 화자의 감정을 대신 느껴야 감정 이입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글의 연결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반면에 소설 텍스트에는 화자의 소설적 담론과 언어를 통해 상상적으로 보여지는 이야기 세계가 혼합되어 있다.
㉡ 그러나 소설에서는 화자의 담론이 가시화되는 물리적인 언어의 배열과 우리에게 상상적으로 수용되는 이야기 세계가 다른 차원을 지닌다.
㉢ 소설이 영화와 다른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어의 주체인 화자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 영화 역시 담론을 매개로 영상을 보여주는 중개성의 장르이지만 영화적 담론과 영상은 물리적 차원에서 대부분 동질적이다.
㉤ 영화 텍스트에는 다양한 영화적 담론과 영상을 통해 직접 보여지는 이야기 세계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 즉,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언어의 배열을 보지만 상상적으로는 이야기 세계를 보는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접속 표현과 지시 관계를 근거로 영화와 소설의 공통점·차이점이 전개되는 순서를 찾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 → ㉤ → ㉠ → ㉣ → ㉡ → ㉥
1. ㉢: 화자의 존재를 소설과 영화의 핵심 차이로 제시한다.
2. ㉤: 먼저 영화 텍스트에서 담론·영상과 이야기 세계가 혼합되는 양상을 설명한다.
3. ㉠: ‘반면에’로 영화에서 소설로 대상을 전환하여 소설 텍스트의 혼합 양상을 대조한다.
4. ㉣: ‘영화 역시’로 두 장르가 모두 담론을 매개로 한다는 공통점을 짚은 뒤, 영화에서는 담론과 영상이 물리적으로 동질적이라고 설명한다.
5. ㉡: ‘그러나’로 영화와 달리 소설의 물리적 언어 배열과 상상적 이야기 세계는 서로 다른 차원임을 밝힌다.
6. ㉥: ‘즉’으로 ㉡의 내용을 물리적으로 보는 언어 배열과 상상적으로 보는 이야기 세계의 대비로 풀어 쓴다.
왜 이 순서인가: ㉠의 ‘반면에’는 앞선 영화 설명 ㉤을 요구하고, ㉡의 ‘그러나’는 영화의 물리적 동질성을 밝힌 ㉣을 전제로 하며, ㉥은 ㉡을 재진술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need의 영화 설명 뒤에 ㉠의 '반면에'가 이어지고, ㉣과 대조되는 ㉡을 ㉥이 '즉'으로 구체화하므로 연결이 자연스럽다.
② X — 틀린 부분은 ㉢ 다음에 곧바로 ㉠을 둔 것이다. ㉠의 '반면에'가 대조할 영화 텍스트의 설명이 앞에 없으므로 부자연스럽다. 올바르게는 ㉢-㉁-㉠-㉣-㉡-㉥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 뒤에 ㉡-㉥을 먼저 두고 ㉠을 마지막에 둔 것이다. ㉡의 '그러나'는 영화의 담론과 영상이 물리적으로 동질적이라는 ㉣ 뒤에 와야 하며, ㉠은 ㉁과 대조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올바르게는 ㉢-㉁-㉠-㉣-㉡-㉥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 바로 뒤에 ㉥을 둔 것이다. ㉥의 '즉'은 소설에서 물리적 언어 배열과 상상적 이야기 세계가 다른 차원이라는 ㉡을 풀어 쓰는 문장이므로 ㉡ 바로 뒤에 와야 한다. 올바르게는 ㉢-㉁-㉠-㉣-㉡-㉥이다.

오답 포인트

㉢이 화자의 존재를 먼저 제시하므로 곧바로 소설 설명이 이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의 '반면에'는 앞에 대조 대상인 영화 설명 ㉁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의 '즉'은 ㉢ 전체가 아니라 ㉡의 '물리적 언어 배열과 상상적 이야기 세계의 차원 차이'를 구체화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서 배열에서는 먼저 독립적으로 화제를 제시하는 문장을 찾고, '반면에 · 그러나'의 대조 대상과 '즉'의 재진술 대상을 바로 앞 문장에서 확인한다. 이 글에서는 ㉁-㉠, ㉣-㉡, ㉡-㉥이 각각 고정되는 연결 고리이다.

암기 포인트

영화 설명 ㉁ → 반면 소설 ㉠, 영화의 동질성 ㉣ → 그러나 소설의 차원 차이 ㉡ → 즉 구체화 ㉥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글을 수정할 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글 작성의 취지 :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여행이 여행지의 주민과 자연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함. 공정 여행이 필요함.

생각만으로도 우리를 ㉠ 설레이게 하는 여행! (㉡) 우리가 이제껏 해 온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에 과연 문제는 없을까? 대형 호텔이나 콘도에 묵으며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을 하면 여행의 수익 대부분이 여행업체에 돌아갈 뿐 여행지의 주민에게는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 (㉢) 우리가 여행하며 배출한 쓰레기와 탄소는 자연을 ㉣ 훼손하고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또 남는 건 사진뿐이라며 사진만 찍는 한심한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새로운 방식의 여행이 바로 공정 여행이다.

① ㉠은 '설레게'로 수정한다.

② ㉡에는 '그런데'를 넣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에는 '더구나'를 넣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은 '깨지거나 상하다'는 의미의 '손상(損傷)'으로 수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한글 맞춤법, 문장 사이의 논리적 관계, 문맥에 맞는 어휘를 종합하여 수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설레다'는 마음이 들떠 두근거린다는 뜻의 기본형이므로 활용형은 '설레게'이다. 접속 표현은 앞뒤 문장의 관계에 따라 선택하며, '그런데'는 전환·대조를, '더구나'는 내용을 덧붙여 의미를 강화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훼손'은 가치나 상태를 해치거나 망가뜨리는 뜻으로 '자연을 훼손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설레이게'의 기본형을 '설레이다'로 잘못 본 표현이다. 기본형은 '설레다'이므로 '설레게'로 고치는 것이 맞다.

② O — 여행이 설렌다는 앞의 긍정적 인식에서 기존 여행의 문제점을 묻는 내용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대조·전환을 나타내는 '그런데'가 자연스럽다.

③ O — 여행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문제에 이어 쓰레기와 탄소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문제를 추가한다. 내용을 덧붙여 강조하는 '더구나'가 자연스럽다.

④ X — 틀린 부분은 '훼손'을 '손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문맥은 여행 쓰레기와 탄소가 자연환경을 해친다는 뜻이므로 '자연을 훼손하고'가 자연스럽다. 올바르게는 원문의 '훼손'을 그대로 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깨지거나 상하다'라는 뜻풀이만 보면 '손상'이 적절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어휘 수정은 사전적 의미뿐 아니라 목적어와의 결합 및 문맥까지 살펴야 하며, 이 글에서는 '자연을 훼손하다'가 알맞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 수정 문제에서는 맞춤법은 기본형으로 확인하고, 접속어는 앞뒤 문장의 대조·첨가 관계로 판단하며, 어휘는 뜻과 문맥 및 목적어와의 자연스러운 결합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설레다→설레게, 그런데→대조·전환, 더구나→첨가·강조, 자연→훼손하다로 정리한다.

NoteBase

문 19.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동 제세동기, 이 기기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위급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심정지가 되면 심장은 평상시처럼 수축하지 못하고 미세하게 떨리는 심실세동의 상태에 빠집니다. 심정지 환자의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어 미세한 떨림을 없애고 심장의 수축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을 제세동이라고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기기가 자동 제세동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일단 119에 신고한 후에, 구급 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 소생술과 함께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응급 처치를 해야 합니다.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 방법을 익혀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분이 지날 때마다 제세동 성공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위급 상황에서, 119에 신고한 후 구급차를 기다리기만 하고 신속한 응급 처치를 하지 않으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① 자동 제세동기의 기능
②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 방법
③ 심정지 환자 발생시 대처 방법
④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법을 익혀야 하는 이유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글에 직접 제시된 정보와 선지의 내용을 대조하여 알 수 없는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용 일치 판단은 선지의 핵심어가 글에 직접 제시되어 있거나 글의 내용으로 타당하게 확인되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이 글은 자동 제세동기의 기능,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대처, 사용법을 익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만 기기의 구체적인 작동 순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첫째 문단에서 자동 제세동기는 심정지 환자의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어 심실세동의 미세한 떨림을 없애고 심장의 수축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데 쓰인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자동 제세동기의 기능을 알 수 있다.
② X — 글에는 전원을 켜는 순서, 패드 부착 위치, 충격 버튼 조작과 같은 자동 제세동기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응급 처치를 해야 한다'는 말은 사용의 필요성을 밝힌 것이지 사용 방법을 설명한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이 글에서는 자동 제세동기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알 수 없다'이다.
③ O — 둘째 문단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신고한 뒤 구급 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 소생술과 자동 제세동기로 응급 처치를 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따라서 심정지 환자 발생 시의 대처 방법을 알 수 있다.
④ O — 셋째 문단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제세동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신속히 응급 처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법을 익혀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의 '사용 방법'과 글에 나온 '사용하여 응급 처치를 해야 한다'를 같은 내용으로 오해하기 쉽다. 글은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필요성만 제시할 뿐, 실제로 어떻게 조작하는지는 제시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의 핵심 명사를 본문에서 찾고, 단순히 관련 단어가 등장하는지만 보지 않고 선지가 요구하는 구체적 정보까지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사용해야 한다'와 '사용하는 방법'처럼 필요성과 방법을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기능은 무엇을 하는지,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이유는 왜 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신문기사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은행 창구는 물론 거래시장에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못 사게 만드는 모순적인 정책에다,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동일시하면서 무주택자는 물론 선의의 다주택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범정부 대책이란 말이 무색하게 땜질식 보완책을 계속 내놓는 등 정부 당국 역시 갈팡질팡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건의사항이 접수될 때마다 수시로 사례별 적용 지침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대책이 '다주택자 압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다주택자가 2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겠다고 약속할 경우에 한해 은행에서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2년 룰"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 거주 A씨는 현재 세종시에 소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평수가 큰 아파트로 이사 가기 위해 같은 지역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로 골치를 썩이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아파트를 2년 내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3년 정도 후에 소형 집을 팔 생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왜 하필 2년이냐"면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투기세력이 돼 버렸다. 2년은 되고 3년은 안 되는 게 말이 되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2년이라는 기간은 은행업감독규정을 준용한 것일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면서 "이에 대한 건의사항이 발생하면 수정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도 다주택자들은 큰 혼돈을 겪고 있다. 무주택자의 경우 이번 대책 이전에 계약했을 때 감정평가금액(주택사업시행인가일 기준 자산평가액) 40%가 아닌 종전의 60%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여기에서도 다주택자는 제외됐다. 특히 다세대·다가구주택(소유자가 1명이지만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한 연 면적 660m^2 이하) 단독주택 보유자들이 타격이 크다. 서울 성북구에 재개발 예정인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B씨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세입자들이 이사를 나갈 텐데 받을 수 있는 이주비 대출금은 적고 그렇다고 지금 사는 집을 내 놓을 수도 없어 앞이 캄캄하다"면서 "또 집을 내놔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한 은행 관계자는 "1가구 2주택자들의 문의전화가 많다"면서 "아직 당국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내놓지 않아 답변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나온 규정도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 표를 봐야만 설명이 가능할 정도"라고 전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직전에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과 실무진이 대거 바뀌었다"면서 "담당자들도 이번 대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에 쫓겨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① 다가구주택 보유자들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이다.

② 기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③ 다주택자는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④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계약한 무주택자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60%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답 1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신문 기사에 직접 제시된 사실과 필자의 평가를 선지와 대조하고, 한 개인의 사례를 특정 집단 전체의 사실로 확대했는지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선지의 핵심 대상과 조건을 표시한다.
2. 기사에서 같은 대상과 조건이 언급된 문장을 찾는다.
3. 개인의 사례가 집단 전체의 상태로 확대되거나, 가능성이 확정된 사실로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핵심 근거

기사는 재개발 예정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B씨가 낮은 이주비 대출액과 주택 처분의 어려움 때문에 전세금 반환을 걱정한다고 전한다. 이는 다가구주택 보유자들이 모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 아니므로 1번은 기사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기사는 다세대주택 보유자 B씨 한 사람의 곤란을 사례로 들었을 뿐, 다가구주택 보유자 전체가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틀린 표현 '다가구주택 보유자들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이다'는 '재개발 예정 다세대주택 보유자 B씨는 낮은 이주비 대출액과 주택 처분의 어려움 때문에 전세금 반환을 걱정하고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 첫 문단에서 대책 발표 뒤 은행과 거래시장의 혼란이 커졌고, 정부가 모순적 정책과 땜질식 보완책으로 갈팡질팡한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기자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③ O — 셋째 문단에 다주택자가 2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겠다고 약속할 경우에 한해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④ O — 여섯째 문단에 무주택자가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계약한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종전 비율인 60%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오답 포인트

①은 '다세대·다가구주택 보유자들이 타격이 크다'는 일반적 설명과 다세대주택 보유자 B씨의 개별 사례를 결합해, 다가구주택 보유자 전체가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과도하게 일반화한 선지이다. '곤란을 겪는다'와 '반환할 수 없다'도 같은 의미가 아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사 독해 문제에서는 선지의 대상, 범위, 조건, 단정의 강도를 본문의 표현과 각각 대조한다. 특히 한 사람의 사례를 집단 전체로 넓히거나 '어렵다'를 '불가능하다'로 강화한 선지는 본문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개별 사례는 전체 사실이 아니며, 어려움은 불가능과 다르다.

NoteBase